



코스피 2407.62 (+11.06)	코스닥 861.94 (+31.98)
금리(국고채 3년) 2.27 (+0.02)	환율(원-달러) 1087.90 (+1.30) (8일)



[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회적기업연구원 설립  
03

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

# 몰랐던 모로코 손실 3000억 드러나

모로코 현장 기자재 문제  
4분기 실적에 반영돼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의 작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인수에 들어갔고 예비실사 과정에서 해외사업장을 들여보지 못 했다. 바로 이 때문에 해외사업 경험이 없는 호반건설로서는 부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인수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해외사업 부실 등이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인수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연초부터 인수합병(M&A) 시장을 강타했던 대우건설 인수전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대우건설의 새 주인 찾기가 새롭게 진행돼야 할 상황이다.

호반건설은 8일 인수 최종단계에서 예기치 않는 대우건설의 대규모 해외사업 부실 때문에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따라서 호반건설은 승자의 저주를 피하게 됐다.

현재 호반건설은 매각 주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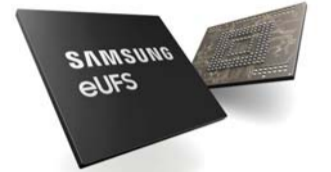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른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호반은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인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지금 발을 빼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실사비용과 지분 매각 풋옵션 보증수수료 등은 감당할 부분이다.

지난달 31일 호반건설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만 해도 사실상 인수가 확정되는 분

## -40°C ~ 105°C 견디는 자동차용 반도체 양산



‘256GB eUFS’ 선보여  
프리미엄 메모리시장 선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수한 삼성전자가 올해는 자동차 메모리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 128GB eUFS(내장 스토리지 메모리)를 양산한 지 5개월 만에 용량을 늘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적 사용이 가능한 256GB eUFS를 선보였다.

삼성전자 차량용 256GB eUFS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하며 계산, 판단하는 작업을 반도체 칩이 담당해 일반 자동차보다 더 많은 반도체 칩이 사용된다.

이에 따라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374억9000만 달러에서 2020년 481억2400만 달러, 2023년 584억90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제품을 시작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차세대 자동차 메모리 시장 선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영하 40~영상 105도 환경에서 작동하는 고용량 자동차용 256GB 용량의 eUFS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구현은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여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전송해야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 때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256GB eUFS를 선보이고, 글로벌 자동차 및 전자 업체에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선보인 256GB eUFS의 내열성을 -40~105°C까지 확장했다. 기존 eMMC 5.0(임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는 저장 모드인 경우 -40~85°C, 읽기모드는 -25~85°C까지 보증한다.

만약 설정된 온도 이상이 될 경우 온도감지 센서가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 신호를 전달해 온도를 낮추는 솔루션으로 자동차 시스템 안정성을 높였다.

<2면에 계속>  
/정은미 기자 21cindium@



활짝 웃는 남북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예진, 이유빈이 8일 오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북한 정광범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평창전도사’ 신동빈, 민간 스포츠 외교 펼쳐

(롯데그룹 회장)

스키협회장으로 경기참관 등  
올림픽 기간 내내 평창 상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평창 일대에 상주하면서 민간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친다.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 회장은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비롯해 알파인스키, 스키점프, 스노보드, 모글, 크로스컨트리 경기 참관 등을 위해 15일 이상을 평창 일대에 머물 예정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신회장은 스키협회장으로서 대회를 참관하고 선수들과 코치,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스키연맹(FIS) 관계자 등 국내외 귀빈을 만나며 스키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대한스키협회 회장에 취임한 신동빈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왼쪽), 세계스키연맹(FIS) 지양 프랑코 카스퍼 회장. /롯데그룹

위해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2년여 앞둔 2016년부터 신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강원도 평창 일대와 정선의 스키 경기장을 방문해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테스트이벤트 대회 등에 대부분 참석하며 밤 늦게까지 경기를 관람하고 시상식도 참석했다. 또한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지양 프랑코 카스퍼 FIS 회장, 사라 루이스 FIS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신 회장은 무박 출장 등 몸을 사리지 않고 해외 주요 행사를 찾아다니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앞장서기도 했다.

2016년 6월 FIS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스위스 오버호펜에서 열린 FIS 집행위원회 회의에 1박 4일 일정으로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현황과 교통, 기온, 강설 등 올림픽 준비 컨디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FIS 지양 프랑코 카스퍼 회

장, 사라 루이스 사무총장과 16명의 FIS 집행위원에게 해외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신 회장은 “많은 안전 훈련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신 회장은 10대 기업 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롯데는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스키협회에 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도자 및 해외 전지훈련을 대폭 늘리고, 포상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 실상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과 스키종목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실상 종목의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해 올림픽 이외에도 유스올림픽, 세계선수권, 월드컵, 주니어 세계 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올 두번째

31.98p 오른 861.94에 장종료

코스닥 선물시장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됐다. 지난달 12일 이후 올들어 두 번째다.

한국거래소는 7일 오후 2시 44분 경 코스닥150선물 3월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돼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효과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물시장의 급등이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과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날 코스닥은 사이드카 발동 후에도 상승추세가 계속되면서 전날보다 31.98(3.85%) 오른 861.94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830선까지 추락했던 주가가 단숨에 회복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 상승세는 기관이 이끌었고 외국인도 장 막판에 매수에 동참했다. 이날 기관과 외국



코스닥, 31.98p(3.85%) 오른 861.94에 장종료. 인은 각각 621억원, 64억원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개인은 139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아울러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폭 올랐다. 셀트리온(6.02%), 셀트리온헬스케어(8.58%)와 셀트리온제약(9.31%) 등 셀트리온 3종사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신라젠(8.91%), 포스코켄텍(6.19%), 스튜디오드래곤(5.88%) 등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